

# 올 하반기 대형할인점 출점 분석

## 최대 210개 출점 ... 업계 대응 필요

■ 취재 / 오형석 ohs@mbakery.co.kr

올 상반기 대형할인점의 약진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기존 유통업계를 이끌던 백화점 등이 이미 대형할인점에 주도권을 넘겨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집계에 의하면 국내 백화점 업계 소매 매출비중이 93~99년까지 12~13%대를 겨우 유지했으며 특히, 95년 이후부터는 8.6%의 한 자리수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자료에 의하면 대형할인점의 경우 지난해 보다 매출이 100% 이상 증가한 업체들로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나로클럽 양재점, 창동점, 홈플러스 대구점은 단일점포로

1,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백화점이나 재래시장 등 기존 유통시스템에서 대형할인점으로 점차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구매패턴 변화는 베이커리 업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대형할인점에 인스토퍼 베이커리가 입점해 있는 상태에서 대형할인점의 자본과 노하우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 및 우수한 집객능력, 소비자의 일괄구매 욕구 등이 맞물릴 경우 베이커리 업계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E-마트 · 한국까르푸 남진(南進) 가속...

#### 홈플러스는 수도권 입성

올 하반기 가장 많은 점포를 출점할 것으로 알려진 E-마트는 지난달 전주점 개점을 시작으로 남부지방 출점에 나섰다. 이 업



체는 이달 천안점을 비롯, 동인천점, 군산점, 대전점, 포항점 등 모두 8개 점포를 전국에 걸쳐 출점한다. 또한 계열사인 신세계 백화점과 더불어 2004년까지 백화점과 E-마트 점포망을 연계, 국내 최대의 유통업체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대구와 부산에서 탄탄한 입지를 굳힌 상태에서 올 하반기에 수도권 진출을 본격화 한다. 이 업체는 지난달 말 안산점 출점을 신호탄으로 복수원점, 수원 영통점을 수도권 입성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지방권 현지화 성공에 힘입은 이 업체는 2005년까지 총 55개 점포를 오픈해 전국적인 규모의 다점포망 대열에 합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까르푸는 홈플러스와는 반대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적인 출점을 서둘러왔던 것에서 탈피, 부산 해운대점, 전남 순천점, 부산 장림점 등 중소도시로 출점 지역을 늘리면서 현지화 전략을 더욱 강화

〈표2〉 대형할인점 2000년 하반기 지방도시 출점계획

할인업체	출점시기	출점지역
E-마트	2000.8	경남 진주점
	2000.9	충남 천안점
	2000.10	전남목포점
	2000.11	전북 군산점
	2000.11	대구 만촌점
	2000.12	대구 달서점
	2001	평택점
	2001	충남 대전점
	2001	충북 충주점
	2001	경북 포항점
	2001	울산점
	2001	광주 상무점
롯데마그넷	2000.8	충남 천안점
	2000.8	부산 해운대점
	2000.9	전남 광주점
	2000.10	대구점
	2000.11	울산점
	2000.11	강원 원주점
	2000.11	강원 원주점
탑마트	2000.8	부산 금사점
	2000.10	경남 창원 2호점
메가마켓	2001.5	부산 남천점
홀마트	2001	경북 구미점
한국까르푸	2000.8. 5	부산 해운대점
	2000.8.21	전남 순천점
	2000.8.28	부산 장림점
홈플러스	2000.10.19	경남 김해점
	2000.11.2	경남 창원점
	2001	울산점

〈표1〉 대형할인점 2000년 하반기 수도권 출점계획

할인업체	출점시기	출점지역
E-마트	2000.10	동인천점
	2000.12	수원점
롯데마그넷	2000.12	안산점
	2000.11	고양점
	2000.12	의정부점
코스트코 홈세일	2000.12	양재점
	2001.상반기	상봉점
한국까르푸	2000.하반기	가양점
홈플러스	2000.8.30	안산점
	2000.9.21	복수원점
	2000.10.12	수원 영통점
	2001	인천 작전점
	2001	인천 금호점
	2001	영등포점

\* 〈표1〉, 〈표2〉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자료에 근거했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연중무휴로 24시간 영업하고 있는 김스클럽은 점포 리뉴얼 이후 작년 동기와 비교해 100% 이상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는 등 더욱 탄탄한 영업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그넷은 방학점, 연수점, 일산점을 비롯해 7개 점포를 오픈할 계획이며 한화마트와 LG마트 등도 활발한 영업전략을 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올 하반기는 대형할인점간의 생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내년 말 210점포 예상 ... 유통질서 재편될 듯

96~99년까지 연평균 82%의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한 대형할인점 업계는 출점 전략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도시 현지화 전략을 추진 중인 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형할인점의 2000년 매출 총액은 약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선두권 업체들의 출점계획이 2000~2001년에 집중돼 있어 내년 말이면 국내 대형할인점 수는 무려 210개에 다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형할인점들의 전국화·다점포화 전략이 궁극적으로는 과열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형할인점 업체 마케팅부서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과당경쟁으로 인한 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일정 바잉 파워(구매력)를 갖추지 못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형할인점의 공격적인 영업전략에 대해 베이커리 업계는 아직 이렇다할 대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우선 규모와 마케팅 측면에서 열세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미 할인점의 인스��어 베이커리가 상당한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커리 업계가 제품의 품질을 더욱 높이고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는 등 발빠른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K]

<표3> 주요 할인점 현황

업체	출점수			2000년 이후 주요 출점 지역
	1999	2000	2001	
E-마트	20	33	42	이천, 동인천, 수원, 목포, 군산, 해운대
롯데마그넷	12	19	33	방학, 연수, 부평, 일산, 주엽, 울산, 대전
한국까르푸	11	18	-	가양, 상봉, 중계, 천안 등
홈플러스	2	8	-	수원, 안산, 김제, 창원 등
전체 할인점 수	126	170	210	-